

지역 소식통

익산시,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익산시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북부청사 미래농정국 산림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봄철 산불예방과 대응에 나섰다.

시는 우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8개소 333ha(7.0km) 산림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포함)으로 지정·고시하고 입산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산불예방과 산불조기발견 및 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3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4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4곳을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전담 특별 관리를 하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에 앞서 감시원, 진화대 인력을 투입하여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등 산불 취약지에 대한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익산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합월읍 등 9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약칭 '행복센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지역은 합월읍 오산·왕궁면, 동산·남중·모현동·영동1·어양·삼성동 등 총 9개소이다.

명칭이 변경된 행정복지센터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담팀이 신설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됐다. 기존의 복지민원을 신청·접수받던 기존 방식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다양한 기관과 지역주민들과 협업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정부의 당초 방침보다 한 해 앞선 2017년에 전체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하고 남은 20개 면·동의 명칭도 연말까지 일괄 변경할 예정이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중등당산제 10일 개최

2017년 새해를 맞아 군산지역의 모든 액을 풀어나고 시민의 안녕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중등당산제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중등경로당에서 개최된다.

군산문화원(원장 이진원)이 주최하고 중등당산제보존위원회(회장 설영숙)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고삼매농악단의 흥겨운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보존위원 및 참석자들이 당산제를 지낸 후 개식행사로서 국인예, 격려사, 축사 등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산제는 지난날 재래식 시장이었던 '서래장'을 지켜준다고 믿는 서래산(중등돌산)에 있었고 이 곳 마을 조상들은 200여 년 전부터 대대로 소중히 모시면서 살았다.

이진원 군산문화원장은 "군산지역의 화합과 희망을 북돋아 주는 뜻 깊은 동제에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온라인 시장개척 박차

군산시가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시는 군산우체국, 군산판매동조합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수특산물 소비 시장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판매동조합은 우수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소포물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우정청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인 '전북달팽이장터'에 입점하고 우체국 마케팅팀과 마케팅, 육선 등 오픈마켓 프로모션을 진행해 군산품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려 지역경제 소확행상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시, 패션단지 기업유치 활기

##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익산시가 패션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로서 이전하는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패션단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로서 이전하는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영

위 3년이상인 상시고용 5명이상인 국내복귀기업 분사 등을 설립·이전하는 경우 1억초과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기업당 5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 기업 중 보석업종의 기업에 지원하던 시비보조금 지원을 패션단지로서 입주하는 패션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한다.

추가입지보조금도 100분의 20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2018년까지 분양계약 체결한 패션단지 이전 패션업종

의 기업에 대하여 100분의 20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더불어 시설투자비의 50% 범위내 최고 15억원 이내에서 시설투자용자금의 최대 연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장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패션단지로서 국내복귀기업 등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다양한 패션업종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파급력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 군산대, 2017학년도 등록금 0.2% 인하 결정

##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간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

군산대학교가 2017학년도 학부등록금을 0.2%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군산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간 등록금을 인하하지 동결하게 됐다.

올해 군산대학교의 모집정원은 1735명으로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0%인 193명이 줄었다.

입학정원의 축소로 군산대학교의 등록금수입은 2016학년도 대비 7억여원이 감소될 상황이지만, 군산대학교

는 학부모의 등록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삼 끝에 또 다시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군산대 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2012학년도에는 5.4%, 2013학년도 0.3%, 2014학년도 0.2%, 2015학년도 0.1% 등 4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했고, 2016학년도 동결했으며, 올해 다시 0.2%를 인하하게 됐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학교의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165만 9900원, 이학·체육계열 197만 8900원, 예능·공학계열 212만 300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이다.

나익균 총장은 "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등록금 수입도 대폭 줄어들었지만, 학부모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등록금을 0.2%인하하게 되었다"면서 "재정적 어려움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책사업 수주 및 재정 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AI 확산 방지 철새 먹이용 볏씨 살포 지속 추진

군산시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먹이용 볏씨 살포를 지속 추진한다.

금강철새조망대는 철새들이 부족한 먹이를 찾아 인근 가금류 농장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주 1회 이상 나포면 십자들에 철새 먹이용 볏씨 500 ~ 1,000kg을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고창 동립저수지에 군집해 있는 철새들이 금강으로 본격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부터는 살

포 양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먹이가 뿌려지는 나포면지역은 생물다양성관리지역사업에 따라 주민들이 벼 수확 후 볏짚을 그대로 두거나 잘게 잘라 논바닥에 뿌려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주로 쇠기러기, 큰기러기, 흰뺨검둥오리 등이 머물고 있다.

철새조망대측은 시설 자체에 조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먹이주기 과정에서 철새 분변 등이 옮겨지지 않도록 방역복 착용은 물론, 작업 후 사용물

품 즉시 폐기와 함께 철저한 소독을 병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황병운 철새생태관리과장은 "가창오리 군무 등을 보기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AI 확산 방지를 위해 먹이주기는 물론 예방활동과 방역 등에 전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만큼 철새 서식지 접근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법사량위원회 군산·익산지역연합회

# 군산경로식당 방문... 노숙자·독거노인 사랑나눔 실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과 법무부 법사량위원회 군산·익산지역연합회(회장 김동수)는 최근 군산경로식당을 방문하여 약 350여명의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배식 및 설거지, 청소 등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군산지청과 법사량위원회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지난 2004년에 처음 실시하여 현재 137회째이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형길 지청장과 신현성 형사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직접 어르신들에게 배식을 하였으며, 준비한 굴과 이상단 빵을 나눠 드렸다.

김형길 지청장은 "추운 겨울날 사랑나눔 실천 운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를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 익산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부서별 추진 기본계획 확정

익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회 전국체전과 제88회 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별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기초단체에서는 마지막으로 기획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체전 분위기 조성, 시민참여 대책, 안전관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전국체전을 계기로 친절한 도시, 깨끗하고 환경이 잘 된 도시, 문화적으로 성숙한 도시를 만들 수 있

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체전 준비에 들어갔다.

이지영 부시장은 "오늘 기본계획 마련 회의 이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익산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10월경에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제88회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은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고 경기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분산 진행된다.

익산=장왕원기자

#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강연호 교수 국어문학회 2017년도 신임 회장 선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강연호(사진) 교수가 국어문학회 2017년도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국어문학회는 국어국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1965년 창립된 학술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 학술교류를 통해 국어학과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교육학 등 국어국문학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다양한 학술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매년 2차례의 학술대회와 3차

례의 학술지 발간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 '국어문학'은 현재 64집 발간을 앞두고 있어 연료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학회를 이끌 강연호 교수는 현대문학(국문학) 연구 및 문예창작 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창작 작품을 발표했으며, 계간 '문예연구' 편집주간 및 '시와 정신'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원광대 인문학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사지원사업을 수주해 익산 인문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인문학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 군산초등학교 이전 속도 낸다

## 원활하지 못했던 부지 매입 완료... 2019년 3월 예정대로 개교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하던 군산초등학교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초가 이전하는 지곡동 151-6번지는 지난해 말 8명의 토지소유주들과의 협의가 최근 완료돼 2019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4월 10일부터 설계용역에 본격 착수해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발주를 5월 10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작금 준비가 끝나면 오는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 5개월간 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돼야 개교 전까지 학교시설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18년 3월에서 2019년 3월으로 개교일자가 1년 늦어지면 서 지지부진했던 군산초 이전에 대한 주민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토지매입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개교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설계용역부터 시설공사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곡동 151-6번지로 이전하는 군산초(가칭 은파초등학교)는 지난 2015년 1월 중입투자심사에 승인받은 뒤 같은해 6월 군산초 이전이 확정돼 2016년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군산초는 총 32(일반 30, 특수 1, 병설 1) 학급에 약 8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군산시 우수 고등학생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 개강식이 전북익양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강식에는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 김원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등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우수 고등학생 주말학습 협력사업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서울대 등 주요대학의 합격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명실상부한 인재양성의 등용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2420여명이 참여해 꿈을 키워왔으며, 2017학년도 대입 수시합격자가 지난 해보다 42% 가량 상승한 500여명이 서울 주요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평가시험을 거쳐 선발된 2·

3학년 학생 100여명과 군산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성적우수자 70명, 전북외고 및 중앙고 신입생 20명 등 총 290명이 참가한다.

특히 치열한 공개경쟁을 통해 교과 및 비교과 운영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스카이에듀학원과 키움에듀의 우수한 강사진이 과목별 맞춤형강의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해 비교과 교육과정(자기소개서 개별지원, 개별이력관리 컨설팅, 소논문 작성 및 논술지도)을 병행 추진 11월 초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한다.

문동신 제단 이사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입시에 발맞춰 효율적인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 지역 학생들이 더 훌륭한 환경 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며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군산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